

# 광주·경기·부산,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첫발 내딛는다

## 29일 시청서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경기·부산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이달 말 결성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딛는다. 이 자리에는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을 모은다. 광주시는 21일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등이 참석한다. 기획 주관 단체인 광주전남연구원과 참여 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등 관계자도 참여한다. 2025년 말까지 5년 간 진행되는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경기도, 부산시가 참여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진행 중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지난해 말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1천800억원으로, 초광역 연계를 통해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공유, 제품 개발,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R&D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AI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5월까지 사업 기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기획비는 5천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을 갖춘 광주가 데이터 거점이 되고, 판교 테크노밸리 등 연구자원이 있는 경기도가 R&D

거점, 의료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부산시는 실증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난해 12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초광역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29일 결성식에서 협력을 선언하게 된다"며 "3개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전국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겨울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을 방문, 정기현 원장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수고하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희망 도시락'을 전달했다. <전남도 제공>

## 김지사, 수도권 상황실 '희망도시락' 전달

### "코로나 대응 노고 감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수도권 소재 2곳의 코로나19 대응상황실을 찾아 희망도시락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지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상황실과

서울시 수도권특별상황실을 찾아 '희망나눔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전남도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까지 경북지역 의료진들에게 도내 15개

사회단체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매일 40여개씩 총 1만2천980개(1억6천만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친환경 특산물로 만든 희망도시락 400개와 해남 고구마빵 간식을 제공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전국 감염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도권 공동상황실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과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분야에서 2019년, 2020년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총 5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실적을 각각 동시 평가했으며 전남도는 2년 모두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이 청구 요청 전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관리' 등

모두 4개 분야를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전남도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사전정보 공표' 분야와 정보공개 수요를 분석하고 반영한 '고객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수요자 중심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에 구축해야"

### 신정훈 국회의원 주최·전남도 주관 토론회 개최 "화순백신특구 생산·인허가 특화플랫폼 발전을"

전남도가 1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최적지'라는 각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확대 방안 마련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확대' 공론화, 전국적 붐 조성 및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당위성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구종훈 화순군수, 김민석(영등포울)·김성주(전주병)·김원이(목포)·이유빈(광산갑)·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의 '전남 바이오산업 현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필요성' 기초발제와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의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발제에 이어 학계, 연구계, 기업계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기영 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화순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 면역 기반 세포치료 및 의료서비스의 세계적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순 백신산업 특구가 예방 백신 중심에서 치료 백신·세포치료제 개발, 전주지역 인프라 확충, 임상 실험, 생산, 인허가 특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용 방안으로는 의약산업, 차세대 면역 치료제, 의료 서

비스, 치료 휴양 등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호 국장은 "화순 백신특구 기반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생산 거점 역할 확대, 방·산·연 연계 면역 치료제 상용화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며 "바이오메디컬 중심의 차세대 클러스터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집중하는 한편, 오는 2022년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첨단의료산업의 기틀을 닦았다"며 "전남에 유치되면 충북과 대구·경북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 의료 3각축이 완성돼 바이오 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 상무지구-문화전당 '신호체계 연동화' 추진

### 市 교통건설분야 10대 시책 발표

광주시가 올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 편의성을 개선하는 교통건설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21일 "교통건설 분야 역점 추진과제 10개를 선정해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무지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 빠른 소통을 위해 '신호체계 연동화'를 추진한다. 고질적인 소통 애로구간인 신도심(상무지구)-원도심(문화전당)간 빠른 소통을 위해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연동화'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대상구간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주

정차 등 연동화 장애요인을 제거한 후 신호연동화를 도입해 교통소통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송정역 주변 교통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송정역 주차장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협의해 대체주차장 확보 및 시민의 편리한 이용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일부를 양성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확실히 단속하는 합리적인 노상 주정차 정책을 도입한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광주를 위해 교통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겨울기자

##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남개발공사, 공공기관 최초 획득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자율 안전 보건 체제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과 노력으로 KOSHA-MS 공인 인증을 취득했다. 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재해 예방 활동 시스템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비적용 사업장 대비 산업재해 발생 36%, 환산 재해자수는 21% 감소되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정기자

**명절 선물세트 예약중!**

**박진수 부각**  
PARK JIN SOO BUGAK

농부합

**바삭바삭 저염식 수제건강간식**

**박진수 부각** 은 지역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쌀 김부각/다시마 부각 선택 가능합니다.  
[택배비(+3000원)]

- 01 밥과 함께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 02 어른들 술안주에 최고입니다.
- 03 남녀노소 최고의 영양간식입니다.

[당일주문 / 당일배송 - 익일배송]  
평일 오전 11시 이전 주문건은 당일 발송, 익일배송 됩니다.  
11시 이후 주문건은 익일배송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일: 주말 제외(월요일~금요일)

명절 선물 세트	5팩	22,000원
	7팩	30,000원
	12팩	50,000원

영업허가 제2019-0230113호

NAVER 박진수 부각 검색

**062) 941-8511 / 010-3602-6623**